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pril 2025 Issue | Vol. 2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동남아시아 국가들, 미국산 제품 구매 늘려야 할 수도 — page 1-2
- BIR, 세금 신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첨단 기술 서비스 강화 — page 2-3
- UNCTAD: 필리핀, 기술 준비도 우수국가 중 하나 — page 3-4
- 정책 전망: BSP, 4월 10일 주요 금리 인하 및 완화 사이클 재개 — 분석가들 — page 4-7
- 3월 필리핀 제조업 축소 — page 7
- “임금 인상, 여전히 고용주 이윤 범위 내” — 노동 연대 — page 7-8
- [Post Event Article] KCCP’s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 page 9-12

동남아시아 국가들, 미국산 제품 구매 늘려야 할 수도

April 08, 2025 | L.M.J.C. Jocson | BusinessWorld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DBS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동남아시아 경제국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월요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DBS은행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6개국 미국이 부과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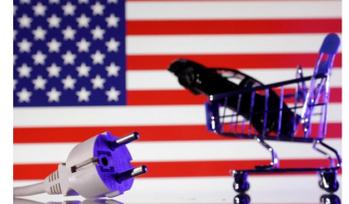
DBS는 “4월 2일 미국이 발표한 일련의 관세 조치에는 간단한 논리가 있다. 한 국가가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세 혜택을 보려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구매하거나 미국에 덜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아세안 6개국(ASEAN-6)은 평균 27.5%의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DBS는 “이 지역은 무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 자재, 기계, 항공기, 에너지, 국방 장비 등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4월 5일부터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4월 9일부터는 개별 국가에 대해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Power plug, shopping cart and miniature car are seen in front of US flag in this illustration taken Dec. 17, 2024. —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필리핀은 대미(對美) 수출품에 대해 17%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그러나 역내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기본 관세율이 10%인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반면, 베트남은 46%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뒤를 태국(37%),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가 잇고 있다.

ASEAN-6은 이러한 강화된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부들은 상호 조치의 규모와 범위가 더 명확해짐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양자 간 논의를 시작하고 양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조치나 다른 경제적 조치 —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중요한 광물 협정 등 폭넓은 화해적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제안 이전부터 필리핀은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 ASEAN-6 국가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그러나 DBS는 미국이 체결한 협정을 이행하는 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스처는 여전히 의미 있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들은 미국과 계속 개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나머지 국가들과의 더 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DBS는 필리핀의 경우 전자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전자 수출이 필리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Cont. page 2]

동남아시아 국가들, 미국산 제품 구매 늘려야 할 수도

[Cont. from page]

2024년, 필리핀은 미국에 12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다. 총액 중 절반 이상인 53%에 해당하는 64억 3천만 달러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를 새로운 관세에서 면제했다.

DBS는 의류, 신발, 섬유 제품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언급했다.

“필리핀은 미국에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더 높은 세율을 가진 국가들을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DBS는 덧붙였다.

하지만 DBS는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FTA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가장혜택국(MFN) 조건 하에서 모든 국가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도전적일 수 있다”고 DBS는 덧붙였다.

아시아 경제 전망

DBS는 아시아 전체 지역에 대해 이러한 관세가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경고하며, 이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은 쉽게 3.5%를 초과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실질 GDP 성장률이 50~100bp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다른 더 적대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만약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 추가적인 관세와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금융 시장 조정이 악화된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특히 미국이 2차 관세(미국 제재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고, 중국과 EU가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겨냥하면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다.”

DBS는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경기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과잉”이 발생할 확률이 45%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35% 확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수출 의존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더라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4/08/664536/southeast-asian-countries-may-need-to-ramp-up-their-us-purchases/](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4/08/664536/southeast-asian-countries-may-need-to-ramp-up-their-us-purchases/)

BIR, 세금 신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첨단 기술 서비스 강화

April 07, 2025 | Philippine News Agency



BIR Commissioner Romeo Lumagui Jr. (PNA file photo by Avito Dalan)

마닐라 - 4월 15일 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국세청(BIR)은 세금 신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했다.

“BIR은 전자 신고 센터와 지역 세무서(RDO)의 전자 라운지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금 신고와 납부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로메오 루마구이 주니어 BIR 청장이 월요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한 안내문에서 말했다. 그는 납세자들에게 기관의 전자 시설과 세금 납부 채널을 이용하여 번거로운 없는 세금 신고 경험을 하도록 권장했다.

“우리의 목표는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더 쉽게 하고 번거롭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루마구이 청장은 또한 연간 소득세 신고서(AITR)를 조기에 제출하고 세금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권장하며, BIR의 전자 서비스와 세금 납부 채널을 통해 원활하고 번거롭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는 승인된 대리 은행, 세금 징수 담당자, 그리고 마야, GCash, MYEG와 같은 다양한 전자 플랫폼이 포함된다. [Cont. page 3]

BIR, 세금 신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첨단 기술 서비스 강화

[Cont. from page 2]

납세자들은 BIR 웹사이트에서 전자 BIR 양식(eBIRForms)과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eFPS)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BIR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RDO에 있는 eLounges에서 직접 방문하여 세금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다.

승인된 대리 은행(AAB)은 세금 납부를 수용하기 위해 오후 5시까지 영업 시간을 연장하고, 4월 12일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앞서 BIR의 2025년 국가 세금 캠페인 시작식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한 BIR의 세금 징수 노력을 칭찬했다.

2024년 BIR은 2.85조 페소 이상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2023년 징수된 2.52조 페소보다 높은 수치이다.

루마구이 청장은 BIR의 성공이 개선된 납세자 서비스와 강화된 집행 덕분이라고 말했다.

BIR은 최근 법무부와 협력하여 고액의 세금 미납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그 중에는 10억 페소 이상의 세금 미납 혐의를 받고 있는 Ever Bilena Cosmetics Inc.와 1억 7,600만 페소의 세금 회피 사건에 직면한 Hillmarc's Construction Corporation이 포함된다.

또한 BIR은 2024년에 30만 7천 개 이상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여 2억 5천 7백만 페소를 회수했다.

한편, '가짜 거래 추적(RAFT)' 프로그램은 가짜 영수증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사건을 제기했으며, 2023년 6억 페소에서 급증한 43억 페소 이상을 징수했다.

담배, 전자담배, 기타 세금 부과 상품에 대한 불법 거래 단속은 지난해 1억 1천만 페소 이상을 거둬들였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7665](https://www.pna.gov.ph/articles/1247665)

UNCTAD: 필리핀, 기술 준비도 우수국가 중 하나

April 07,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브라질, 중국, 인도, 필리핀은 UN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5 기술 및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준비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준비도 지수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과학 지식 생성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은 개발도상국 중 기술 준비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국가로 언급되었으나, 2024년에는 프런티어 기술 준비도 지수에서 순위가 두 계단 내려가 2022년 58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프런티어 기술 준비도 지수는 170개 경제국에 대해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순위를 매겼으며, 필리핀은 0.61의 점수를 기록했다.

기술 지수의 5개 주요 분야에서 필리핀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ICT 순위, 69위; 기술 역량 순위, 107위; 연구 개발 순위, 68위; 산업 순위, 9위; 금융 순위, 75위.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그들의 소득 수준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브라질,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 스웨덴, 영국, 미국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라고 UNCTAD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UNCTAD는 각국의 1인당 GDP 순위와 전체 지수 순위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인도는 76위, 중국과 필리핀은 49위, 브라질은 41위 차이를 보였다.

UNCTAD는 이러한 “대조”가 많은 국가들이 “프런티어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기회를 포착하고 경제 성장과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할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Cont. page 4]

UNCTAD: 필리핀, 기술 준비도 우수국가 중 하나

[Cont. from page 3]

UNCTAD 무역 보고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더 많은 연구개발(R&D) 활동과 강한 산업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들 국가들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나가며 결국 일부 “프린티어 기술”에서 선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국가의 혁신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수 점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소에 대해 UNCTAD는 이들이 기술 역량과 산업 관련 요소이며, “모든 하위 지수는 1인당 GDP, 인구 규모 및 지역적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AI 논문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UNCTAD 보고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이미 상당한 수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 국가들은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4/07/unctad-phl-among-tech-readiness-outperformers/>

정책 전망: BSP, 4월 10일 주요 금리 인하 및 완화 사이클 재개 — 분석가들

April 07,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정책 결정 기구인 금융위원회(Monetary Board)는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회의에서 주요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bps) 인하하며 통화 완화 사이클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이 전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2월 이후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가들은 주말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수입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금요일에 발표된 3월의 필리핀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둔화되었다는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4월 10일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한 분석가들이 전했다.

필리핀통계청(PSA)이 금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물가상승률은 2월의 2.1%에서 1.8%로 더 낮아졌으며, 2024년 3월과 비교하면 3.7%에서 크게 둔화되었다.

“따라서, 마치 카우보이가 술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BSP는 다음 주 금리 설정 회의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큼니다. 통화 완화 사이클을 계속할 수 있는 문이 이제 더 넓게 열렸습니다.”라고 HSBC의 아세안 경제학자 아리스 다카나이가 말했다. [Cont. page 5]

UNCTAD: 필리핀, 기술 준비도 우수국가 중 하나

[Cont. from page 4]

다카나이는 금요일의 물가상승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하는 것이 국내 수요를 지원하고 “BSP의 통화 전파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은 이미 지나갔으며, 예상대로 필리핀에 부과된 상호 수입세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발전은 필리핀 경제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국 시장 점유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점을 볼 수 있다고 다카나이는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물가상승률이 BSP의 리스크 조정 물가상승률 전망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은행이 다음 주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 정책 금리가 충분히 넓어져서, BSP가 연준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라고 HSBC의 경제학자가 덧붙였다.

유니온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은 금융위원회가 4월 10일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수입세가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BSP의 결정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더 약한 글로벌 경제 성장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월 10일 BSP 회의에서 25베이스포인트(bps)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아순시온은 말했다.

메트로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니콜라스 마파는 올해 들어 목표에 부합하는 물가상승률과 성장 모멘텀 둔화를 고려할 때 25bps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핵심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다소 미미한 수요 측 압력을 나타내며, 이는 BSP가 이번 주 회의에서 고려할 요소일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필리핀 시티 경제학자 나린 추초티탐은 3월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지면서 이번 달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금요일의 발표된 물가상승률이 BSP의 3월 예측 범위인 1.7-2.5%의 하한선에 가까우며 목표치를 하회하고, 우리가 수정한 예측이 실질적으로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만큼, 우리는 4월, 8월, 12월에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외부 경제적 압력이 커짐에 따라 후자의 두 차례 인하가 각각 6월과 10월로 앞당겨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추초티탐은 물가상승률 발표 후 보고서에서 말했다.

시티는 물가상승률이 2025년 동안 BSP의 목표 범위 하단에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물가상승률 예측을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6년에는 3.2%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초티탐은 필리핀에 부과된 17%의 미국 수입세가 “대부분의 다른 ASEAN 국가들보다 낮고, 영향이 미미하여 오히려 필리핀에게 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필리핀과 중국 담당 경제학자 사라 탄은 이메일에서 3월 물가상승률이 BSP가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데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식품 카테고리에서의 둔화로 필리핀의 물가상승률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대부분은 높은 기저 효과로 평준화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엘리뇨 현상이 발생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작물 수확에 타격을 입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3월 10일에 시행된 돼지고기 가격 상한제와 낮은 쌀 수입세도 식품 물가상승률을 둔화시켰습니다.”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고 가계 예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수입세가 심화되는 외부 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외부 경제적 압력

존 네리(BP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트럼프의 수입 제한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외부 경제적 압력을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 경제국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필리핀은 내수 수요에 대한 강한 의존도 덕분에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보호막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Cont. page 6]

UNCTAD: 필리핀, 기술 준비도 우수국가 중 하나

[Cont. from page 5]

"가계 소비가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면 세계 무역 둔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리는 말하며,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가 BS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P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금리 인하의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적절할 수 있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는 여전히 가능하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한다면, 이는 글로벌 통화 긴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BSP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네리는 말했다.

국가의 상당한 경상수지 적자는 폐소를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네리는 덧붙였다.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리카포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BSP와 일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금리 차이가 유지되어 폐소 환율, 수입 가격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지원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의 최근 인플레이션률이 2.9%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BSP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서 4%의 중간값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향후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4월 10일 예정된 다음 BSP 금리 설정 회의에서 시작될 수 있고, 향후 몇 달 내에 있을 연준 금리 인하와 일치할 수 있다"고 리카포트는 덧붙였다.

너무 낮지 않다

존 파울로 리베라,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 선임 연구원은 2025년 3월의 1.8%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좋은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BSP(필리핀 중앙은행)는 보통 2~4%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1.8%는 목표 범위 하단보다 약간 낮지만 지나치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이 느려지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식료품과 교통비 등 필수 품목에 대해 가계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이라면, BSP는 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가 생기고, 이는 차입,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리베라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소비 지출의 둔화나 경제 성장의 둔화를 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요 주도 인플레이션이 부족하다면 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된다면,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들까 봐 투자나 고용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라고 리베라는 덧붙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란조나,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 경제학자는 3월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생산 증가보다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는 BSP의 정책 금리 추가 인하를 위한 이상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과 통화 가치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낮은 금리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인플레이션 감소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란조나는 말했습니다.

"성장 전망이 확고하다" —BSP

레몰로나는 "글로벌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했다"고 인정했지만, 한편으로는 통화위원회가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BSP 예측 범위인 1.7%에서 2.5% 사이의 하단에 위치했습니다.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Jr.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정책 기간 동안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BSP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상방 압력은 유틸리티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쌀 수입 세금 인하의 영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하방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그는 데이터를 언급하면서 말했습니다.

[Cont. page 7]

UNCTAD: 필리핀, 기술 준비도 우수국가 중 하나

[Cont. from page 6]

“앞을 내다보며, BSP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통화 정책 완화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통화 정책 설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때, 통화위원회가 데이터에 의존하며,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과 이전 통화 정책 완화의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위원회는 4월 10일 통화 정책 회의에서 최신 CPI 결과와 최신 국내의 발전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레몰로나는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회의에서 통화위원회는 BSP의 역레포(RRP) 금리를 5.7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하룻밤 예치금리와 대출 금리는 각각 5.25%와 6.25%로 동결되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olicy-forecast-bsp-to-cut-key-rates-resume-easing-cycle-on-april-10-analysts/>

3월 필리핀 제조업 축소

April 06, 2025 | Othel V. Campos | Manila Standard



필리핀 제조업 활동은 3월에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축소되었으며, 조사 결과 신규 주문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 필리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3월에 49.4로 떨어졌으며, 이는 2월의 51.0과 1월의 52.3에서 하락한 수치로, 성장과 축소를 구분하는 5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월 수치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가 끝나면서 18개월 간의 확장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5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3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제조업체들은 공장 주문과 신규 판매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11개월 간의 성장 기록을 멈추게 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고객 수 감소가 둔화에 기여했으며, 해외 고객의 주문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3월의 고용 수준은 변동이 없었으며, 제조업체들은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576763/ph-manufacturing-contracted-in-march.html>

“임금 인상, 여전히 고용주 이윤 범위 내” — 노동 연대

April 07, 2025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P200의 일괄적인 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 연대는 월요일에 이러한 인상은 고용주의 이윤을 약간 감소시킬 뿐이며, 일부 그룹이 예측하는 치명적인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조합연맹(TUCP), 기루상 마요 우노(KMU), 필리핀 노동자연합(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자유노동자연맹(Federation of Free Workers)으로 구성된 전국임금연대(NWC)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BON 재단의 분석을 인용한 TUCP 부총재 루이 P. 코랄은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조정은 사업의 수익성 한도 내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IBON 재단이 정부에 제시한 모든 연구들은 P200의 임금 인상이 고용주의 이윤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코랄은 말했습니다.

NWC의 추정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고용주의 순이익에서 9%에서 15% 정도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약 15%, 중소기업은 13%, 중견기업은 11%, 대기업은—많은 대기업이 연간 수십억 페소를 벌고 있는 상황에서—9%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Cont. page 8]



A laborer over the weekend works on a street being improved in Makati City. Reports said labor groups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inadequacy of the minimum wage to provide families a decent standard of living, and also called for an end to blaming labor costs for business failures as they advocated for a nationwide wage hike. Meanwhile,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 reported on Monday that costs for constructing residential houses have risen by 11 percent.

“임금 인상, 여전히 고용주 이윤 범위 내” — 노동 연대

[Cont. from page 7]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NWC는 제안된 임금 인상이 기업들이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랄은 또한 기업들이 이미 정부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기업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 하에서 부여된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언급했습니다.

하원 법안 11376, 즉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 법안은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면제를 제공합니다.

바랑가이 마이크로 비즈니스 기업, 10명 이하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기업,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로 영향을 받은 기업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보호가 있습니다.”라고 코랄은 덧붙이며, 반대 의견은 단지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KMU 의장 제로—△ 아도니스는 코랄의 의견을 지지하며,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인상 없이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합니다. 어쨌든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아도니스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2025년 2월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었음을 보고했지만, 임금 옹호자들은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스는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특히 임금 인상이 소비자 가격 상승이 아닌 기업 이윤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넓은 거시 경제적 우려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아테네오 대학교의 노동 경제학자 레오나르도 란조나는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고용주들이 가격을 조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급의 증가 없이 총수요—더 많은 지출—가 증가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임금이 생산성과 함께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균형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라고 란조나는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어 경제 내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 과잉 수요는 동일한 양의 제품을 따라잡으려는 더 많은 돈을 의미하며, 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이 주장은 Journal of Economics와 Regional Development와 같은 여러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성 증가 없이 임금이 인상되면 가격 압박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는 인플레이션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중요한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생산성 성장 없이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정부가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성장률을 관리하며,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여 인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이 비용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도록 실제 노동 가치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필리핀 고용주 연합(ECOP)의 Arturo Guerrero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구조 전반에 걸쳐 자동적인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매업, 호텔업, 서비스업과 같은 마진이 적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마이크로 및 소기업으로,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산 미겔, SM, 제약업체 등 대기업들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해고를 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라고 Guerrero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uerrero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경제 관리자가 이미 그것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들이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ECOP는 지역 임금 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임금 조정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란조나와 게레로는 또한 임금 인상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인상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고객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 인상이 통과되면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란조나는 말했습니다.

현재, 국가 평균 최저임금은 P469입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P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사모로 자치구는 P3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4/07/wage-hike-still-within-employers-profit-margins-labor-coalition/>

[POST EVENT ARTICLE]**KCCP's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pril 03, 2025 | Orchard A & B, Ascott Bonifacio Global City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celebrated its pearl anniversary and its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on April 3, 2025 at Ascott Bonifacio Global City. It was a celebration and reflection of the 30 years of hardwork and dedication of the organization's officers and supportive members.

Every year, KCCP and President Hyunchong Um invit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nd key business leaders and this year is no different as the meeting was attended by His Excellency Amb. Lee Sang-hwa, Korean Embassy, Hon. Mr. Dennis H. Uy, Special Envoy of the President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Digital Transformation, Hon. Sec. Ernesto V. Perez of the Anti Red Tape Authority (ARTA), Consul Enunina Mangio, president of the Philippine Korea Economic Council (PHILKOREC) who all gave their well wishes to the chamber and also heads of other local and Korean organization in the Philippines. Furthermore, as its speaker, KCCP invited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Undersecretary Ceferino Rodolfo who expertly share his insights and valuable presentation on Philippines – Korea Strategic Economic Partners.

The event also highlights KCCP's activities and programs which was shown through a special video that also includes the video message of KCCP Honorary Presidents: Mr. Kwan Soo Lee, Mr. Jae Jung Jang, Mr. Ill Kyoung Park, Mr. Eun Gap Chang and Mr. Ho Ik Lee. A greeting message from our three successful past scholars was also presented to the delight of all the members and during dinner, SBTown's girl group YGIG did a special performance for the event.

KCCP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its gratitude to their generous sponsors: The Ascott Limited, Asiana Airlines,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PI), Canon Marketing Philippines Inc., Dae Jang Gum Corporation, DL E&C, Eastland Heights, Eco Jardin Philippines, Okada Manila, Happy Living Philippines Corporation, Haru Korean Restaurant, Hitejinro Philippines Inc., HRD Korea in the Philippines, HJ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Co., Ltd. I'M Hotel, Island Resort Club Tour Services, Inc., Industrial Bank of the Philippines Manila Branch, Karga X - Nationwide Trucking Platform, Kepco Philippine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Pisopay.com, Inc.,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Corporation, Shang Properties Inc., Sunjin Philippines Corporation and Worldwidelink Trading Corporation

It was truly a night of commemoration and celebration of KCCP's 30 years in service of Korean business interests in the Philippines and a testament to the dedication of its leaders, advisers and members. KCCP is looking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success and milestones to achieve.

[PHOTO HIGHLIGHTS]

Mr. Hyunchong "Joseph" Um
Presid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H.E. Amb. Sang-hwa Lee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to the Philippines



Sec. Ernesto V. Perez
Secretary
Anti Red Tape Authority

[PHOTO HIGHLIGHTS]



Hon. Mr. Dennis Anthony H. Uy
Special Envoy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Consul Nina Mangio
President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Usec. Ceferino Rodolfo
Secretary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warding of Certificate of Appreciation to
DTI Usec. Rodolfo



Wine Toasting with PHILKOREC Chairman
Atty. Fabian K. Delos Santos and KCCP
Honorary President Mr. Jae J. Jang

[PHOTO HIGHLIGHTS]



KCCP Board and Advisers



With Honorable Guests



With YGIG



With Members and Guests



With Members and Guests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We woul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sponsors:

